

치 사

올 한해 복지라는 결실을 수확하는 분주한 시기임에도 불교사회복지의 앞날을 다지기 위해 동참하신 많은 분들을 깊은 마음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사회복지 지도자 여러분!

우리 불교계가 현대사회복지의 전문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복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지도 20여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선구적인 역할을 자청하여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일구월심(日久月深) 구제중생의 대장정을 곳곳하게 걸어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불교가 대승불교의 면모를 의연하게 지켜내고 있다는 자부심은 바로 여러분들이 복지 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오직 굳건한 신심과 원력으로 일구어낸 일천 이백이라는 복지 시설과 백여개가 넘는 전문 복지 관련 단체, 그리고 매일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수십만의 불교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바로 대승불교의 실천행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해온 우리의 불교사회복지는 이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복지사업이 특정 계층을 위한 소극적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식으로써 민관과 기업 등, 협력적 대응방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복지계는 이제부터 부득이 국가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 계층의 복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도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선도적 복지 역량 또한 결집되고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양적인 확산보다는 불교계의 삼보 정재와 인적, 물적 복지자원이 우리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자원과 함께 진심의 정성을 담보하는 불교복지를 모색하고 활용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분께서 각 지역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과연 진정한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해 결집된 역량을 어떻게 투여해야 하는지 진지한 토론과 발전적 합의가 도출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모이신 불교계 사회복지 지도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대승보살의 신심과 원력으로 언제나처럼 매진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가 행복이 넘치는 불국정토, 복지사회로 화현되는 날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고 의미있는 시간으로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6(2012)년 10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